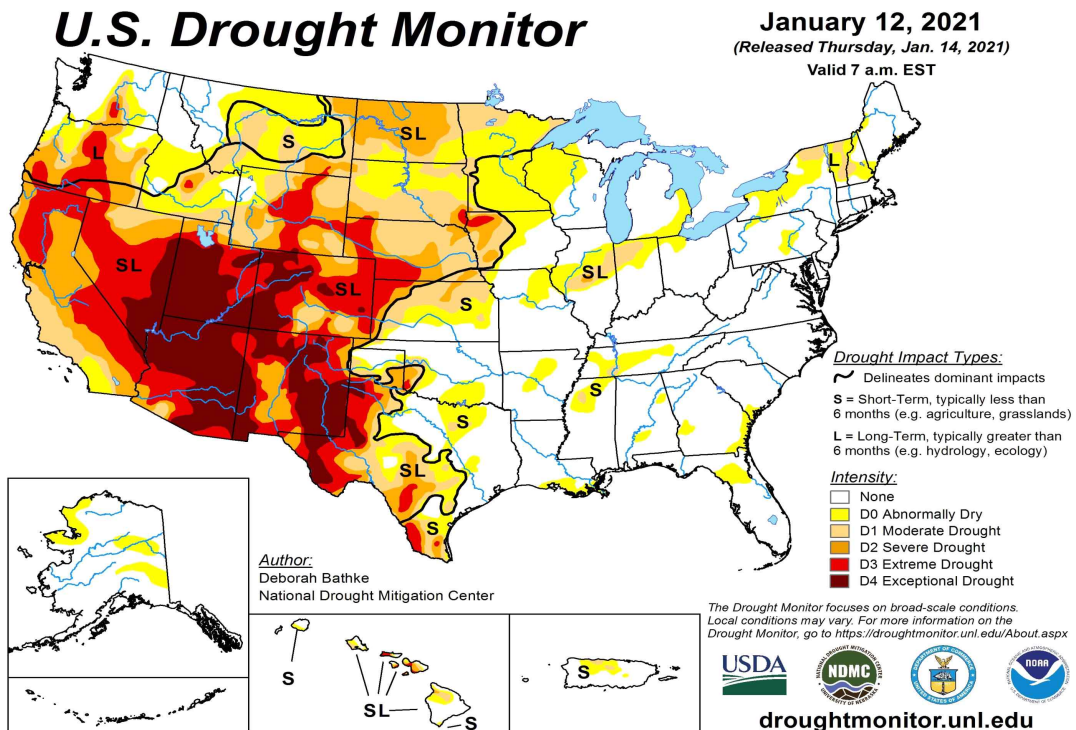


1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3)

□ 미국 기후 현황(1/10~1/16)

남부에 폭설이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주는 그 후에 강력한 폭풍 전선이 북서부에서부터 중서부까지 강수와 강풍을 일으켰던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남서부까지 가뭄에 시달린 지역들을 포함해서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초의 그 폭풍이 수 십년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텍사스 일부를 덮었지만 남동부를 횡단하는 동안 약해졌다. 더 먼 북쪽은 폭우가 캐스캐이드 서쪽 지역에 홍수를 촉발했는데 강풍 때문에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북부 폭풍이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1월 13~14일에는 강풍 (지역적으로 시속 70~90 마일 또는 그 이상)이 로키 산맥 북부 구역과 평원을 긁고 지나갔다. 중서부 위쪽 일부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눈보라를 일으켜서 여행이 중단되었고 일시적으로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갔다. 폭풍우 속에서도 북부는 전형적이지 않게 온화한 날씨가 지배하여 작년 말에 발달한 추세를 이어갔다.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의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0° F 더 높았고 온기가 동쪽으로 뉴 잉글랜드까지 확대되었다. 극서부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덮였다. 대조적으로 남부 전역은 쌀쌀하여 많은 곳들의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남부 깊숙한 곳에서 가벼운 동결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겨울철 농업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1/10~1/16)

■ 유럽: 춥고 불안정한 날씨가 유럽의 많은 지역을 덮었으며, 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이번 철의 첫 번째 광범위한 강설이 관측되었다. 영국에서 남동쪽으로 프랑스 북부와 동부까지, 독일과 폴란드의 북부도 포함하여, 보통 내지 강한 강수 (10~80 mm 액체 등량)가 보고된 한편 북쪽으로 향한 알프스에는 아주 큰 폭설 (100 mm 이상의 액체 등량)이 내렸다.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 (10~50 mm)에서부터 발칸 남부 (20~90 mm, 그리스에서는 지역적으로 100 mm 이상)에도 폭우와 산지 눈이 내렸다. 중유럽과 북유럽내 다른 곳은, 많은 지역에서 첫 눈을 보고하면서,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강수 (2~20 mm)가 보고되었다. 헝가리 중부와 북세르비아의 밭에는 여전히 눈 덮임이 없이 비바람에 씻겼지만, 주말에 동프랑스와 남독일에서부터 동유럽까지는 중간 내지 두꺼운 설피빙원 (5~20 cm)이 확대되었다. 불안정한 기상 패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북부 및 발칸 반도에는 건조한 조건이 만연했다. 유럽의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추운 날씨로 만연했지만 (평년보다 1~4° C 낮았고, 지역적으로는 스페인과 노르웨이에서 평년보다 5° C 이상 낮았음), 스페인 (밤 최저 기온이 -10° C 가량)에서 추위에 노출된 영양기 겨울 곡물들이 말라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사(凍死)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간헐적인 비 (1~1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와 햇볕 덕분에 남퀸즐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면화와 수수는 양호한 전망을 유지했다. 기온이 평년보다 2° C 가량 낮았지만,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여 (최대 기온이 낮거나 중간 섭씨 30도대) 여름 작물의 발달에 유리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호주 남부와 서부는 날씨가 건조하여 늦겨울철 작물 수확이 지체 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 호주 낙농부에 따르면 대략 98% 수확되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르헨티나: 절실히 필요했던 비가 주요 농업 지역을 적셔서 여름 곡물, 유지작물 및 면화가 더욱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토양 수분 보유량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총강우량이 25~100 mm였는데 라 팜파에서 북동쪽으로 차코와 코리엔테스의 남부까지 가장 많은 양 (50 mm 이상)이 집중되었다. 먼 북쪽 (특히 살타와 포모사)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 C 높았으나 다른 곳에서는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아서 증발산을 통한 수분 손실량을 낮췄다. 중앙 아르헨티나는 전반적으로 선선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거나 중간 수준의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작물들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수분과 온도에 민감한 발달기에 근접하거나 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1월 14일 현재 각각 91% 및 97%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여주었다. 면화 파종은 단지 1 포인트만 진행되어 90%에 도달했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 대략 10% 뒤쳐진 것이다. 한편, 밀은 99%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2 포인트 앞섰다;



생산을 주도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는 97%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4 포인트 빠르다.

■ 브라질: 주요 생산 지역들에서 광범위한 소나기가 대두와 기타 여름들에게 수분을 적기에 공급했는데, 다만 남부의 옥수수과 대두 지역에는 건조 포켓들이 계속되었다. 강우는 아주 변동폭이 컸다 (수 밀리미터에서 50 mm 이상까지). 가장 건조한 곳들 (총강우량이 10 mm 이하)은 마토 그로소 도 술 남부와 상 파울로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재배철의 많은 기간 동안 주기적인 건조를 겪었다.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강우가 동반하였는데, 며칠 동안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서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의 증발산 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토양 수분 수준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막았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대두와 기타 작물들을 위한 수분 수준이 기껏해야 적당한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매주 내리는 강우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 현재 옥수수는 15% 수확되었고 또 다른 24%는 성숙기에 있었다; 대두는 31%만 개화를 시작했을 뿐 발달이 훨씬 뒤쳐져 있었다. 파라나에서는 1월 11일 현재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 둘 다 최소 90%가 생식기에 도달하였고 일찍 심은 작물들은 지금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다.